

가르치는 교회 ▪ 전파하는 교회 ▪ 봉사하는 교회

표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1. 영적부흥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어,
2.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3. 21세기를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4. 지역사회를 인도하고,
5. 세계선교에 헌신하는데 있습니다.

월 행사 안내

5월 1일(수)
수요예배 7시
한우리 베이직 시작

5월 9일(목)
마더와이즈/파더와이즈 자유과정 시작

5월 18일(토)
부부학교 개강

5월 21일(화)
성인 알파 수료

대 예수교장로회
양주

한우리교회

담임목사 **남 우 택** (Stephen W. T. NAM)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442-1457

Hanou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교회 소식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알림

- 한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2024 4기 한우리반 수료를 축하합니다.
김미경 김유석 김인경 신덕식 양평금
유현진
- 2024 상반기 성장반 수료를 축하합니다.
곽용윤 김소희 김애나 김은영 김진영
김현희 노서희 노형석 박은현 배준호
신지원 양은창 이슬기 이장훈 이형섭
정소희 정용선 조송래 채하승
홍보영 황종하 황현심 황해성
- 공동체를 섬겨 나아갈 직분자(장로 3인,
권사 10인, 안수집사 5인)를 선출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주부와
게시판 공고문 참조) 5월 11일까지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Term2 사역개강

- 문화센터: 5월 6일(월) 10am
- 엄마랑아가랑: 5월 8일(수) 10am

제12기 부부학교

부부관계의 의미를 정립하고 풍성함을
누리갈 내면 성장을 위한 과정입니다.
기간: 5월18일(토)~7월6일(토) 8주
시간: 매주 토요일 3:30-6:00pm
회비: 부부당 \$100 (교재 포함)
문의: 김규영집사 022 0299 838
카톡 아이디: DavidQkim

건강한 가정은 세상의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한우리 가정사역 성경의 다섯 가지 원리

'24 마더와이즈 & 파더와이즈 자유과정

일시: 2024.05.09.- 06.27.(목)
시간: 오전 10시~12시, 저녁 7:20~9:00
장소: 한우리 교회 조이홀, 비전홀
문의: 오전반 이규삼 권사 021 686 598
저녁반 박경남 집사 027 432 5524
최재인 집사 021 524 896

사무실에 신청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서

- 꿈의 나라 학부모 일일교사: 5월 12일
- 기쁨의 나라 학부모 일일교사: 5월 19일

수요예배 및 한우리 베이직

- 수요예배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드리고 7시 45분 부터는 '한우리 베이직'이
진행됩니다.

7시	수요예배		
7:45 8:15	기도 베이직 (교회카페)	찬양 베이직 (비전홀)	전도 베이직 (조이홀)
	이요한목사	이성민목사	안현수목사
8:15	1, 2교구	3, 4교구	5, 청년부
*교구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부

- 이번 주일 오후 3시에 타카푸나비치의
어린이 놀이터 옆에서 거리전도를 합니다.
불신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일	목장/사역팀 거리전도 스케줄
5	5	웰링턴 / 에벤에셀 MercyShips
	12	캠보디아늘푸른 / 캠보디아바라크

교우동정

- 결혼
안병주(안양수,이준희 집사의 아들)군과
문소영 양이 지난 4월28일 혼인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천
임경택 집사(박세정)가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지용호 집사(이봉희)가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주 다스리시네

Chris A. Bowater

올네이션스 역

나의 주 - 다스리 시-네 -

나의 주 - 통치하 시-네 -

주의나라 가 - 임할때까 거 -

주님의뜻대 로 - 날볼드소 서 -

목장소식

주님과 함께 하는 한우리 푸른목장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초원	목장 이름	목 자	연락처
코람 데 오	1 로템나무 평양	김승기	21575899	온 유	39 베다니	이강용	21977942
	2 예멘	형재홍	2102945114		40 인도네시아	채제섭	21424199
	3 천국 나그네	강성배	211069821		41 미얀마	신동명	21719167
	4 제주한라	이상용	21821190		42 도우라안디옥	황용선	21399603
	5 멜번	지영철	2102750720		43 Kia Ora	이경현	2102750654
소 망	6 하얼빈푸른	김영현	211721138	44 한국 다음세대	정민혁	21630912	
	7 낮은 올타리	주성은	2108354513	45 중국무지개	이성열	274573211	
	8 우크라이나	김형수	275622266	46 터키오네시보로	김태성	212168531	
	9 느헤미야	이정석	21868075	47 감비아	김규영	220299838	
사 랑	10 선한사마리아인	권호남	212627967	48 베뢰아	이재용	210480543	
	11 아베스	김인배	21759380	49 필라델피아푸른	임상규	2108661226	
	12 바울 로마	오 훈	2102859399	50 인도원달라	안병우	2108491788	
	13 스칸디나비아동행	김용태	274711446	51 히엘 필리핀	한진호	272710948	
	14 바나바	김종국	21654688	52 베트남	김형석	21453862	
다 윷	15 바누아투 푸른	남성주	2102701990	53 이리안자야쁘대나	채금희	21569056	
	16 블라디보스톡	민봉식	211063498	54 양의문	조종면	275325423	
	17 헤세드 누쿠알로파	김용희	211282102	55 말라위	여운영	225439531	
	18 수단로고스	김성국	272714894	56 오클랜드	장태용	224695511	
	19 솔로몬제도	송현호	2102954933	57 북한개성	주윤태	2102847491	
빛	20 칠레파타고니아	김호준	221996630	58 키르키즈스탄	김태중	2102529797	
	21 브엘세바이스라엘	김태원	21677132	59 일본	손동욱	212043531	
	22 오사카	김택원	220806738	60 러셀	안응진	211821185	
	23 가나	이광일	212179303	61 노스쇼어	오현중	273206245	
	24 부르키나파소	권경호	21556934	62 LA	경두런	211365151	
	25 가데스바네아	허진희	2102308976	63 서울	김태성	211499624	
우 리	26 파푸아뉴기니	원재호	21473018	64 오타라	이준영	21410884	
	27 월드파키스탄	손보영	21380366	65 산토	조기동	2102370987	
	28 엘림	이명준	272970117	66 네팔 은혜	구재운	277844645	
	29 고태말라 사랑	김휘홍	21730740	67 직가 바울	이군식	21779958	
	30 태국사랑	김지연	210316041	68 이집트	박진석	21356818	
	31 월드 모로코	윤수정	272008546	69 임마누엘 싱가포르	최재인	21524896	
	32 Central 오클랜드	임상혁	21878868	70 아비가일	안경옥	2102913234	
참 빛	33 필리핀 안티폴로	최종민	272287226	71 오병이어	최병한	212136995	
	34 벨엘	신규식	21417756	72 웰링턴	이종훈	21781999	
	35 모스코	노희영	274308322	73 에벤에셀 MercyShip	이민수	21810072	
	36 섬나	나중엽	21386202	74 캄보디아늘푸른	고현숙	21996653	
	37 익투스북한	박경배	211705296	75 캄보디아바라크	최진순	211862748	
	38 통가	송경순	2102562581	76 예루살렘	박경남	274325524	
교 구	초 원	교역자	3 교구	우 리 참빛 온유	이요한		
1 교구	코람데오 소망 사랑	안현수	4 교구	무지개 임마누엘 약속	이성민		
2 교구	다윗 빛	최영두	5 교구	믿음 성결	김진영		



새로운 삶의 출발 시리즈 2
새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라 (행 1:12-14)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 사는 사람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사람의 특성들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1. 성경에는 크게 두 개의 서로 다른 공동체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메시지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보세요.

2. 사도행전 1장에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구성원에 대해 정리해보세요.

3.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공동체)의 특성을 메시지 중심으로 정리해보세요.

4. 이번 주 메시지를 통해 내게 주시는 교훈을 한가지씩 나누고 기도하세요.

에리트레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성경 번역팀, 내전 상황에도 연합해 성경 번역 이어가

에리트레아의 성경 번역팀이 내전 상황에서도 시골 지역과 북미로 흩어져 각 지역에서 연합해 성경 번역을 이어가고 있다고 미션네트워크가 최근 전했다.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의 관계는 복잡하다. 이 두 나라는 2018년 20년에 걸친 분쟁을 끝냈다. 이 기간 동안 약 10만 명이 사망하고 100만 명이 난민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불과 2년 후, 에리트레아는 에티오피아의 티그라이 지역의 준 군사 단체에 맞서 함께 싸웠다.

이 지역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에리트레아 성경 번역팀은 에리트레아의 쿠나마족을 위해 성경 번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위클리프선교회의 전략 서비스 이사인 맥 헛트는 “쿠나마족은 수십 년 동안 내전으로 고난을 겪었다”며 “그들 중 다수는 이웃 국가로 이주했고, 실제로 몇몇은 난민 신세로 북미로 왔다”고 말했다. 헛트는 쿠나마 팀원들, 안전과 번역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요청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북한

“네 육체가 큰 악에 빠지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편 중독된 북한 주민 사망 사례 연이어 발생

최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아편 중독에 걸린 주민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데일리NK에 따르면 지난 13일 길주군에서는 아편 중독으로 이혼당해 혼자 살던 50대 남성이 인민반장에 의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평소 하루에 2번 이상 아편을 복용해 온 그는 경제난에 아편을 구하지 못하면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아편은 오래전부터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지고 있다. 설사 등 비교적 흔한 질병에도 아편을 복용할 만큼 의약품 대용으로 많이 쓰인다. 심지어 아편 주사를 6개월에 한 번씩 맞으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 노년층에서 정기적으로 아편을 주사하는 경우도 흔한 것으로 전해진다. 농촌 지역에서는 단속을 피해 몰래 아편을 재배하면서 중독자가 점점 늘어났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출처: 데일리NK, 연합뉴스 등).

기 도 문

사랑하는 하나님,

- **[에리트레아]** 에리트레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경 번역에 힘을 다하고 있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북한]** 치료를 위해 시작된 일이 중독이 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주민들을 보살펴 주시고, 마약의 덫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 **[교우를 위해]**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된 직분자들이 선출되어 우리 모두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